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 pp.263~28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조선후기 종교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석

尹 在 根

(대진대학교)

《요약》

조선후기의 사회에 있어 종교운동은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닌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궁극적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의미부여로 현실의 갈등을 극복하게 한다. 우리는 왜 역사적으로 조선후기사회에 이르러서 계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전과는 다른 역사의식, 사회인식, 자기각성 등이 발현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증산은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조선후기 종교사회의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조선후기사회의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의 갈등 양상과 증산의 이에 대한 현실인식의 태도와 방법, 그리고 갈등 극복의 논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증산의 종교사상에 근거하여 그의 현실인식에서 출발하는 천지공사의 사유체계가 조선후기사회의 사회변혁과 기층민중들의 자아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사회적 갈등, 현실인식, 천지공사, 상극, 해원, 이상사회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논의의 성격

종교적 요소로서 종교적 리더쉽·종교사상·종교집단은 그 당시 사회에서 변동 지향적 행위를 고무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는 사회변동을 추진하는 잠재적 힘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사회의 신종교운동에서 이들 요소는 사회변동에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종교의 개창자 내지 지도자들은 종교적 요소로서 그들 자신이 가지는 기존 사회에 대한 인식, 신종교 사상이 기존 사회에 대해 갖는 현실 비판과 변혁성, 그리고 신종교 집단과 사회간의 관계를 분석하여¹⁾ 당시 사회의 갈등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이다.

기능주의 이론가들은 사회의 계속적인 기능에 대한 종교의 공헌과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행위자의 비의도적인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잠재적 긍정적 기능(latent positive functions)은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다른 학자들, 예를 들면 역사학자나 사회철학자들은 종교가 때로 개인이나 사회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종교 문제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종교적 확신이 편협과 박해를 낳고 종교적 합종연횡이 파벌을 낳는 결과에서 많이 보여지며 조선후기사회의 제반 사회 양상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종교의 기능은 종교가 사회와 개인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과 목적은 현재적(顯在的)이거나 아니면 잠재적이다. 현재적 기능은 행위자에 의하여 의식되고 또한 의도되어진 것이나 잠재적 기능은 행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비의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적 목적은 행위자의 의식적 의도를 뜻하고 잠재적 목적은 행위자가 완전히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욕구나 동기화를 충족시키려는 행위를 말한다.²⁾

조선후기의 종교사회에서 대두된 대순사상(大巡思想)³⁾은 한국사상사의 기초 위에서 근대적인 인간에 대한 해석과 세계관을 표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질적인

1) 강영한, 한국 근대 신종교운동의 성격과 사회변동,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78-181쪽.

2) 토마스 오데아 저, 권규식 역, 『종교사회학입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32쪽.

3) 대순사상(大巡思想)은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일련의 종교사상을 총칭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강증산(甌山:姜一淳, 1871-1909) 상제를 종교적 연원으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장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로 봉안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정산(鼎山:趙哲濟, 1895-1958), 우당(牛堂:朴漢慶, 1917-1996)으로 이어지는 종교의 맥을 형성하고, 도통진경의 이상세계 실현의 목적을 구체화시킨다.(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1996, 106쪽.)

의미에서 한국종교의 효시가 된 동학은 조선왕조 사회 전반을 지배해 오던 유교의 형식화를 강하게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반성리학적(反性理學的) 성격을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천주(侍天主)⁴⁾ 사상은 유교적 전통의 인간종속을 거부하고 인간의 평등 및 해방을 선언하는 의식의 전환에 확실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오경장으로까지 확산된 동학의 정신이 일제의 관권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되면서 일반 민중들은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괴리감을 절감하였을 것이며 민초들의 무기력함을 한탄하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열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종교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갈등요소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연원인 증산은 이러한 민중의 심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식의 전환을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서민적이면서도 민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외세에 허물어진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성격⁵⁾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그의 종교사상 중 동시대에 형성된 여타의 종교사상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천지공사(天地公事)⁶⁾라고 할 수 있거니와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민중의 의식을 계발하고 종교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현실의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변혁의 혁세의식을 엿볼 수가 있다.

4) 수운의 시천주(侍天主)는 우주의 주재신인 보편적 신령이 인간개체에 연성적 주재신으로서 내재함을 말한다. 수운은 서학의 천주가 보편적 신령자를 전제하지만 인간 개체 안에 내유신령한 개체신이 없다고 하였고 동학의 천주는 인간 안에 한울님이 있기에 서학과 도(道)의 이치가 다르다고 동경대전(東經大前)의 논학문에서 밝히고 있다.

5) 강돈구는 종교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틀로 민족의 정체성과 통합성 그리고 당대인식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주목하여 한국 근대종교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서울: 집문당, 1992), 25-44쪽 참조)

6) 증산의 공식적인 종교활동기인 1901년부터 1909년까지의 독창적 종교행위를 일러 천지공사라고 한다. 천지공사는 공사(公事), 개벽공사(開闢公事), 신명공사(神明公事), 명부공사(冥府公事)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그의 대부분의 종교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 공사(公事)는 동양 전래의 치세용어로 특히 조선시대의 관아(官衙)에서 관장(官長)이 공무를 집행하거나 송사(訟事)를 치결하는 행위를 일컬었다. 전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또한 공사이며 증산계 교단에서는 천지공사의 의미체계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그 분파를 달리하기도 한다. 대순전경(大巡典經)도 제4장이 천지공사로 편술 되어 있거니와 본 논문에서 전거로 인용되는 대순진리회의 소의 경전인 전경(典經)에는 공사(公事)편--3개의 장에 총 106구절--을 구성하여 증산의 천지공사에 대한 행적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천지공사의 사상적 접근이나 분석의 틀로서는 김탁의 박사학위 논문인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1995)이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종교사회의 갈등 양상과 대순사상에 있어 증산이 파악한 조선후기사회의 현실 인식, 그리고 그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갈등 극복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후기 종교사회의 갈등 양상

조선후기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으며 유럽 세력이 동양으로 몰려오는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였다.

조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차례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결국 서학의 전래와 열강들의 강제적인 개항요구의 근거가 되었다. 그 결과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1910년의 한일합병까지는 무려 30여 개의 불합리한 조약들이 맺어졌다.

내적으로는 조선조 말기의 부패상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로서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삼정(三政) 등의 문란으로 당시의 민중들의 생활은 매우 피폐한 지경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조선조 중엽부터 관료제 유지의 바탕을 이루어 왔던 과거제도도 그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과거의 합격여부는 금전과 세도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며, 지방관리들과 토호들은 행정의 문란을 틈타 민중들을 더욱 수탈했다. 이러한 정치기강의 문란과 탐관오리와 토호들의 민중에 대한 착취는 민중의 봉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계속된 전염병과 흉수, 가뭄으로 인한 흉년, 기근 등으로 민심이 흉흉했던 시기였다.⁷⁾

이러한 혼돈은 현실적 상황과 시대정신의 변혁을 고려하지 못한 까닭이며 이는 곧 기존의 고착화된 체제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즉,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적 가치체계의 재편이 요구되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 근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가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한 내용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개별 종교전통들의 교리내용과 신행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사회의 국내·외적 상황은 정치와 경제적 측면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여러 곳에서 국권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다. 외척과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들에 의해 전개된 권력투쟁의 상황은 세도가의 부패로 말미암아 정치기강의 문란과 관리제도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것은 국가 경영의 근간을 이루던 수취체제의 혼란을 야기하고, 농촌경제에 이르러서는 기층민중을 착취와 수탈의 희생양으로

7) 김홍철, 『한국 신종교사상의 연구』(서울 : 집문당, 1989), 50-68쪽.

삼고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기층 민중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여기서 표출된 민중의 저항 의식은 조선후기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갑오경장의 근대적 제도개혁은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근대적인 국가권력의 개편을 뜻하는 것이었다.⁸⁾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봉건적 제약은 많이 시정되었다고 하겠으나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는 외세의 국내 침투에 이용만 당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세에 의한 강제적 개항 등의 상황은 민중으로 하여금 민족 주체사상을 강조하기에 이른다.⁹⁾

한편 조선후기의 사회는 봉건적 사회모순이 전면화되는 시기였다.¹⁰⁾ 이러한 사회모순은 지주와 소작농의 기층민 뿐만 아니라 봉건적 지배계급 내에서도 나타난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돌보지 않고 중앙상납분을 증대시키자 지방의 관청에서는 각종 세금의 부과, 환곡, 고리대 등을 통하여 재정 부족분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봉건권력에 의한 농민수탈은 심화되었고 이것은 만성적인 삼정(三政) 문란¹¹⁾의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¹²⁾

이러한 사회 모순의 심화는 조선조 봉건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적 체계에 대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배권력에서 배제된 일부의 양반층은 현실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

8) 1890년대 후반에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갑신정변 및 갑오경장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있어서 민중의 힘을 모아 대중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개화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현상이며 또한 그 뒤의 애국계몽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9) 제임스 헌틀러 그레이슨,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서울: 민족사, 1995), 197~203쪽; 237~241쪽.

10) 망원한국사 연구실, 『한국 근대 민중 운동사 서술 분과』, 서울: 1989, 15~35쪽.

11) 삼정이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換穀)을 이르는 것인데 세도정치하의 탐관오리들은 그들의 사복(私服)을 채우기 위하여 갖가지의 방법으로 농민들에 대하여 수탈행위를 자행했다. 전정(田政)에서는 진결(陳結), 은결(隱結), 백결(白徵), 허결(虛結), 도결(都結), 재박(災薄)의 작간등으로--정약용, 목민심서 권10, 호전(戶典)조 중 전정(田政) 조--, 군정(軍政)에서는 황구(黃口), 첩정(簽丁), 족정(族徵), 동정(洞徵), 강년채(降年債), 마감채(磨勘債), 백골징포(白骨徵布)--정약용, 목민심서 권26, 병전(兵典)조 중 첩정(簽丁) 조-- 등의 방법으로, 환곡(還穀)에서는 반작(反作), 가분(加分), 허유(虛留), 입본(立本), 암유(暗留), 반백(半白), 분석(分石), 집세제전(執新稅轉), 사혼(私混), 채록(債勒)--정약용, 목민심서 권 13, 호전(戶典)조 중 곡부(穀簿)조--의 방법으로 농민들을 핍박했으니 농민경제는 파탄되고 국가경제는 고갈되어 19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폐폐의 도가 극에 달해 있었다.

12) 19세기 말 일반대중을 형성하는 층이 빈농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층민중의 생활고는 가히 짐작할 만한 것이다.

식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학문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실학자들은 봉건제의 위기가 미봉적인 인재등용 방법의 개선이나 제도 운영의 개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조치가 불가결함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양반지주들의 토지 겸병(兼併)과 농민의 몰락을 촉진시켜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생산관계인 지주전호제의 해체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지주전호제의 해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몰락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경영형 부농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¹³⁾ 특히 이들 경영형 부농을 비롯한 일부 부농층들은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권익을 보호할 목적에 따라 신분상승을 꾀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가재정의 궁핍에서 찾을 수 있다. 곧 국가에서는 일종의 매관매직이라 할 수 있는 공명첩과 납속책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조선 사회를 지탱하여 주었던 신분제는 동요하게 되었으며, 결국 조선후기사회에서의 양반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¹⁴⁾ 이렇게 증가된 양반 수는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기에 이른다.¹⁵⁾ 이러한 과정에서 몰락한 양반들은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집권정치인들의 끝없는 당쟁은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이라는 두 부류로 양분되기 시작했으며, 이들간의 권력투쟁은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으로 격화되었다. 또한 동학교도들에 의해 일어난 교조신원운동은 그 지배이념이 정치문제에 이어져 동학혁명(1894)을 낳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으로 자행되던 파국적 혼란은 기층민중들을 자극시켜 그들에 의한 봉기, 민란, 화적, 도적 등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것이 정치적 혼란과 결부되어 사회적 대환란의 분위기를 심화시키며 조선후기사회의 계층간, 제도간의 갈등구조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조선후기사회의 변화와 혼란은 그 시대의 사상적 동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당시의 조선의 지도 이념이었던 성리학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예론(禮論)으로 치우치면서 경세지학(經世之學)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7-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재야학자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으로서 실학(實學)이 발생하였고 또 다른 일단의 재야학자 사이에서는 양명학(陽明學)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특히 실학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크게 융성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학과와 경

13) 金容變, 「朝鮮後期農業史研究」- 農村經濟, 社會變動(서울: 一朝閣, 1970).

14) 정석중,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서울: 一朝閣, 1983), 246-251쪽.

15) 양반 계급의 비대화는 그들의 토지를 세습적으로 소유함으로 소작농에 의한 토지 경작이 증가하였고 조정에 납입하는 현물세가 감소되어 기층 민중에 대한 중과세 현상을 야기했다.

세치용(經世致用)학파로 나뉘어 조선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론을 주장하였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실학자들이 주장한 개혁론은 이들이 현실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 못했고, 또한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들의 개혁 주장이 당시의 집권 관료들의 이해(利害)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실학자들의 개혁사상은 실학과 개화사상이 인적(人的)인 계보에 있어서나 사상의 논리에 있어서나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는 상호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¹⁷⁾는 평가에서도 드러나듯이 개항기의 개화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학사상과 함께 양반 지식인층에게 유입된 양명학은 임진왜란 이후 수용되어 주로 주기론자인 화담 서경덕이나 남명 조식(南冥 曹植)의 문하 가운데서 중실이나 서얼 등 불우한 하층 사대부들에 의하여 수용 또는 용인되었다.¹⁸⁾ 그러나 이는 정주적(程朱的) 테두리에서 수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까닭에 양명학이 정주를 벗어나서 새로운 지도이념의 구실을 하기에는 적당치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은 성리학이 국가 사회의 지도이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실학과 더불어 성리학 일변도의 관념적 사변철학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제기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한편,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불교나 도교 그리고 비기, 참서 등이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불교나 도교 등과 같은 종교사상은 태조 이성계의 3대 기본 정책 중의 하나인 승유억불정책에 의하여 배척되기도 하고 실제로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교나 도교 등의 전통신앙은 유교사회의 종교적인 공백을 채워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궁중에 이르기까지 사후 명복을 비는 기원이나 요병(療病)·기복 등의 불사(佛事), 초제행사(醮祭行事)가 행해지게 되었다.²⁰⁾

16) 동학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편,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上)』, 동학혁명의 배경, 19세기의 사상적 흐름(서울, 1994), 350-353쪽.

17) 金泳鎬, 「實學과 開化思想의 關聯問題」, 서울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제8집, 1972, 79쪽.

18) 尹南漢, 『朝鮮時代陽明學研究』(서울 : 집문당, 1982), 348-349쪽.

19) 한우근, 「東學唱道의 時代的 背景」, 『鶴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논총』, 681쪽.

20) 특히 왕실의 위폐나 영정이 안치된 사찰에 대해서는 수증(修葺)을 위하여 공명첩 200장, 증첩 50장을 성급한 일이 있고, 철종 2년(1851)에는 북한행궁(北漢行宮)과 각처의 공해(公廩), 사찰, 군기수선(軍器修繕)을 위하여 공명첩을 성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교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명맥을 이어갔던 것이다.(備邊司 謄錄, 238冊, 哲宗 2年 3月 4日 편 참조)

노장사상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도교는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도관(道觀)이 철폐되고 소격서(昭格署)만 존속하게 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다. 또한 도교적 허무사상은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일부 양반층의 은둔사상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세속을 초월하여 현실을 외면하는 고명한 인사로서 선인을 자처하며 고고한 생활을 하는 풍조로도 계승되어 왔다.²¹⁾ 그리고 도교의 초제행사는 불교와도 결합하여 사찰 내에 이른바 칠성각이 세워져서 일반 민간신앙과 습합되기도 하였다.²²⁾

이와 아울러 민간에서는 비기(秘記)나 참서(讖書)²³⁾ 등이 은밀하게 유포되어 민심을 현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기나 참서 따위는 조선 후기 빈발하였던 민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조선 후기에 빈발했던 자연재해와 기근 등이 양반관료와 아전들의 가렴주구 등에 대한 반발과 비기·참서 등이 연결되었을 때 민란이 발생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민간에서 널리 전승되어 온 것으로는 무속이 있다. 이러한 무속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에 가장 널리 유포되어 왔던 보편적인 신앙형태로, 다시 도교 등과 융합하여 천재지변에 대한 국가적인 기양(祈禳) 등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²⁴⁾

결국 조선사회의 지배 이념을 유교적 사상체계로 제창하여 이념적 명분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속과 전통신앙이 민간에서 널리 행해지게 되자 순조 때에는 무녀와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하는 영을 내리게까지 되었다.²⁵⁾

한편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 중국에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하여 전래된 이른바 서학은 천주교 신앙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통칭하는 것이었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천주교만 지칭하게 된 것이다.

초기의 서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근기지방의 남인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중인,

21) 동학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356-357쪽.

22) 철종 때에는 인왕산 칠성암에 신당이 있어 여기에는 기도자가 끊이지 않았으며, 사인(士人)이 재도(齋禱)를 하면 과거에 합격한다고 하여 유생까지도 종종 기도를 하였다고도 한다(한우근, 「동학의 성격과 동학교도의 운동」,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7, 72쪽.).

23) 이 시기에 널리 유포되었던 비기·참설로는 『無學訣』, 『土亭家藏訣』, 『鄭柳問答』, 『東車訣』, 『西溪李先生家藏訣』, 『형감록』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민간에 가장 널리 유포된 것은 『형감록』이라 할 수 있다. 『형감록』은 대체로 선조로부터 정조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이미 영조에 널리 유포되었다.(한우근, 「동학창도의 시대적 배경」, 앞의 책, 685쪽.) 그리고 『형감록』이 담고 있는 내용은 풍수지리설에 의해 평양과 송도, 한양 그리고 계룡산의 순서로 운수를 점치고 아울러 피난처로 승지를 논하여 이씨 조선 왕조의 국운을 예언, 도참하여 이씨조선의 멸망과 정씨 조선의 대두를 역성혁명사상에 의해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서울: 일조각, 1983)).

24) 한우근, 앞의 논문, 687쪽.

25) 『훈조실록』, 권 14, 순조 11년, 갑인.

서민, 부녀자 등이었다. 실학과 양명학이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계층에 의해 연구되고 수용되었다면, 서학의 경우는 일부 양반층과 중인, 부녀자, 서인 등의 보다 폭넓은 계층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천주교가 이와 같이 넓은 계층에 의하여 환영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의 일부 청년들에게는 천주교서가 일종의 보유론적(補儒論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현실적인 유교의 퇴폐가 그들로 하여금 천주교 신앙에 몰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²⁶⁾ 일반 민중에게는 천주교 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평등주의, 곧 신분제의 부정과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던 당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현실세계를 부정하는 내세사상이 그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층민중들의 삶의 의지의 발현인 그들의 혁세적 종교 사상은 그 내부에 일상적 감성에 적합한 논리구조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과 전파력을 지니면서 기층을 반봉건 항쟁의 일선으로 결집시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적 지배질서를 부분적으로가 아닌 총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체제에 대한 변혁투쟁이 본격화되려면 기존의 지배 질서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당시의 기층민중들은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것이다.

결국 역사적 전환기와 사회적 급변기에 정국의 혼란, 사회적 불안, 가치관의 붕괴, 지배종교의 쇠퇴, 기성 종교의 화석화 등등의 사회병리현상은 당시의 기층민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 이념과 정신적 안식처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신종교는 억압받는 민중들의 살아남으려는 의지의 발로였으며 그들의 생애를 대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²⁷⁾

유교적 가치에 의해 단일체제를 유지해 오던 조선사회가 후기에 이르러 다양한 종교운동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중기 이후 나타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상부구조인 유교적 가치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하나의 필연적인 공백현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후기 종교운동의 분화는 유교주의라는 특정 가치를 통치의 이념으로 삼으면서 그 밖의 종교적 가치들을 엄격히 통제해 온 지배계급의 정책이 사회변동에 따라 설득력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조선 후기의 종교운동²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조선조

26) 한우근, 위의 논문, 690쪽.

27)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 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4-31쪽, 참조.

의 유교가 갖는 모순과 한계성을 자체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양반계급 내부에서의 유교보완운동과, 다른 하나는 유교적 가치와 유교적 사회체제로부터 소외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왔던 피지배계급이 주어진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계기로 하여 자신들의 욕구와 열망을 체계화하려는 운동이었다.²⁸⁾ 이러한 경향 속에서 발생하게 된 조선후기의 종교운동은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만민평등이라는 사상으로 지배층과 부딪히면서 변혁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근대화는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민중들의 잠재된 욕구의 분출이며 이는 보다 나은 경제적 상황에서의 열망이었다. 아울러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의 지상과제였던 민족주의의 문제가 대두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태동한 신종교운동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급속도로 진행된 조선후기사회의 붕괴와 서구의 제국주의적 영향에 의한 문화적 충격현상, 그리고 기존의 규범체계의 혼란에서 오는 규제력상실 등 조선후기의 사회에서 발생한 아노미 현상은 민중들에게 상실감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공백현상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의 민중들은 이러한 공백현상을 타개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망을 기약하는 종교 사상적 회귀를 추구하며 종교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미래대망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기대감을 충족 하고자 한 것이다. 민중들의 이러한 열망은 동학혁명으로 이어졌으나 동학혁명의 실패는 민중들에게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또 다른 대망을 갈망하게 하는 이중적 구조로 작용하게 되었다.

Ⅲ. 증산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이상사회

종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문화의 중심적 요소로서 기능한다. 종교가 사회 내부에서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안정과 현존 사회 체계의 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변화하는 역동적인 실체인 것이다.

그러나 종교는 사회변화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 종교는

28) 황선명은 이를 종교상징을 축으로 한 문화론적인 시각에서의 규범문화의 paradigm을 대체하여 들어가는 감성공동체의 유연한 흐름, 즉 유동성이라는 언어로서의 운동이 가지는 상징적인 은유(metaphor)를 읽어 내려고 하기도 한다(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서울: 일지사, 1992), 325-328쪽.).

29) 위의 책, 335-345쪽.

사회변화의 선두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완강한 보수주의적 중심축이 되기도 한다.³⁰⁾

한편, 종교집단은 사회 변화가 가져다 준 새로운 국면에서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기능한다. 종교적 신념, 다시 말하면 종교적 이념과 가치는 종교와 사회적 발달 및 변화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긍정적이기도 하며 부정적이기도 한 양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 변화의 국면에서 출현했거나 기능한 종교의 중심 전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벤자민 넬슨(Benjamin Nelson)에 의하면 종교는 문화의 중심적이며 기본적인 측면이고 문화 일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 내용은 현존의 사회 상황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며 충돌하기도 한다. 문화와 마찬가지로 종교는 “사회적 변화와 과정에 목표와 목적, 역사적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유전감(the sense of flux)을 제거하는 역할의 극적 설계”³¹⁾이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대순사상을 고려할 때, 그것은 고통 · 불운 · 좌절과 같은 의미의 문제(problem of meaning)에서 비롯된 민중의 파토스적인 열광의 반영과, 감성문화로서의 남조선 신앙(南朝鮮信仰)과 같은 종교적 이상 실현의 연대적 행위로 나타난다. 실제로 19세기이래 종교상징을 축으로 하는 농민 봉기와 동학 등의 종교운동은 사회적 습관(praxis)³²⁾처럼 줄을 잇고 있어 한국종교사에 있어 황금의 시대를 구가한다.

그러므로 증산은 당시의 정신적 고뇌에 시달리는 일반민중의 종교적 구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의 종교사상은 그의 사회인식과 종교적 자기각성을 통해 성립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당시의 아노미(anomie)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된 것이며 민중들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종교의식과 삶의 근원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

30) 토마스 오테아 저, 권규식 역, 앞의 책, 199-201쪽.

31) Benjamin Nelson, “Self Images and System of Spiritual Direction in the History of European Civilization,” in *The Quest for Self-Control: Classical Philosophies and Scientific Research*, Samuel Z. Klausner(ed.)(New York : Free Press of Glencoe, 1965), p.53.

32) 通俗社會學(pop sociology)의 구성 개념을 빈다면 感性共同體의 中樞部는 사회구조의 모순과 지배와 피지배관계 및 신분계급적인 拮抗이 빚은 窮班·殘班 내지 민중들로서 봉건지배수탈구조에 항거하는 농민 봉기와 革命을 일으킨 중심세력이라는 매우 경직스러운 構圖로 성찰될 것이다. 또한 價值 변혁과정에서의 급성 아노미현상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황선명, 앞의 책, 326쪽.)

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³³⁾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보면 증산의 사회인식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증산은 이러한 사회인식에 기반하여 삼계의 총체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천지공사를 감행하였던 것이니³⁴⁾ 증산은 당시의 사회상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첫째로, 신명계와 인간계의 질서가 무너져 상극의 현상이 세계를 지배하므로 인간과 사물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리와 질서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벽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³⁵⁾ 둘째, 인간계의 혼란은 신과 인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신명계의 혼란한 상황이 인간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신명계의 조정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기성종교들이 제 역할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보편성을 상실한 것이며 민중들의 불안과 불만의식을 가중시키므로 각 종교들을 새롭게 통일시켜 불안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⁶⁾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조선후기의 혼란한 사회상과 기층민중의 새로운 이상을 이루려는 열망은 한국 신종교 출현의 배아로 작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동학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여 민중의 힘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의 종교정신이 봉기 혹은 혁명의 명분으로 변용 되어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사회의 생민들에 대한 폭압의 요인이 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접어드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증산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갈등구조의 해결책으로써 삶의 절망 앞에서 무기력하던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종교사상은 그 종교의 교의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적 조직체로서 사회에 전승이 되고 있으면서 소속교도들의 신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

33) 전경, 공사 1-3.

34)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앞의 논문, 106-111쪽.

35) 선천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고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전경, 공사 1-3).

36)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전경, 교법 3-23).

은 종교사상은 궁극적 진리와 우주의 형성에 관한 해명, 그리고 인간의 실존과 생의 가치에 대한 해명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사상의 구성 자체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인식 태도 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현실세계는 진멸지경에 처한 참혹한 세계이며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하여 건설되는 후천선경은 종교적 이상세계가 된다. 그에 의하면 선천이라고 하는 현실세계는 상극의 지배논리에 의해서 포원(抱冤)된 세계이다. 그러므로 증산은 개혁을 통하여 상생의 법리가 운행하는 후천의 선경세계를 개창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교적 각성을 한 증산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때의 핵심개념이 바로 천지공사이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향성과 존엄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존시대가 되는 것이다. 증산은 세속적 지식과 재리에만 편향된 인간에서 탈피하여 천·지·인 삼계의 이법에 따라서 생을 영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인간상이 곧 도덕군자, 진인(眞人), 신인(神人)이요 ‘하늘사람’이라고 일컫는 인간상이니 이것이 ‘인존(人尊)’의 인간관념인 것이다. 이러한 인존관은 내재적 본래 심성을 회복하는 인간상이라고도 말 할 수 있으며 세계를 개조해서 후천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태라고 할 수 있겠다.

종교적 세계관은 세계의 형성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그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보편적으로 전통종교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상세계에 상대하는 이상세계를 피안(彼岸)의 극락정토, 천상의 천당, 대동사회, 신국(神國) 등으로 이상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것은 또한 현실세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상세계를 피안의 세계 또는 절대타계로 보지 않고 현상세계를 구체적인 이상세계로 개조하려는 신앙형태도 존재한다.³⁷⁾ 대개의 경우 18세기 이후 등장하는 종교전통에서 보여지는 세계관이 그러하다.³⁸⁾

증산은 선천시대의 법리적 상극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고 모든 인사가 도의에 맞지 않아 원한을 파생시키고 이러한 원한이 삼계에 누적되어 현실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인과적 구조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긴장과 해체상황의 원인을 원한관계로 해석한 증산은 이러한 갈등구

37) 대순종학교재연구회 편, 『태순사상의 이해』(경기포천 : 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131- 135 쪽.

38)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한국 종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수운(水雲)의 동학의 경우도 지상천국의 건설을 기치로 삼고 있거니와 일부(一夫) 김항의 정역사상도 음양의 교역에 의한 후천의 선경이 현실을 기반한다고 본다. 소태산에게서 보이는 개혁도 인간정신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세계의 개혁인 것이다.

조의 사회를 재통합시키기 위하여 모든 원한을 풀어 없애는 일이 가능할 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며 이러한 새 세상에서 비로소 인간 또한 완성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증산은 선천을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세계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선천의 문제점을 극복한 세계인 후천이라는 이상적인 세계상을 제시하고 있다.³⁹⁾

그가 제시한 후천선경은 그 동안 왜곡되어진 인간의 도덕과 도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원시반본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질서나 체계가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형되고 왜곡됨으로써 파생되었던 인류의 문제를 근원의 세계로 되돌림으로써 해결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산이 제시하는 이상사회는 정치적 안정과 만인평등이 실현된 인존의 사회이며,⁴⁰⁾ 경제적 안정과 경제정의가 실현된 풍요의 사회이고⁴¹⁾, 사회·문화·종교적 갈등이 해소된 통일의 사회이다.⁴²⁾

IV. 증산의 종교사회적 갈등 극복의 논리

증산은 혼란과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광제(廣濟)하여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고자 천지를 개벽하고 새로운 배포(配布)를 꾸미는 진법을 폈다. 이것을 일러 공사(公事)'라고 한다. 이러한 공사는 천지공사' 또는 삼계공사'라고도 표현한다. 즉 공사의 범위가 인간의 세계만이 아닌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외계 전체를 객체로 한다는 것이다.

원래 공사(公事)라는 말은, 이미 언급했듯이 공적인 일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관아에서 관장이 송사나 공무를 처결하던 행위를 일컬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39)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전경, 예시 80).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전경, 예시 81).

40) 전경, 교법 1-2;1-9;1-10;1-67, 전경, 예시81, 참조.

41) 전경, 교법1-63;1-64;3-35, 전경, 예시80, 참조.

42) 전경, 공사3-5, 전경, 교법3-23, 전경, 교운1-65, 전경, 예시8;12;51, 참조.

공(公)’의 내용이 증산에 있어서는 상제(上帝)의 자격으로 천지 또는 삼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세계의 구원과 우주질서의 변혁이라는 광범위한 종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은 이러한 일련의 종교적 행위를 실제로 행하고 있다.⁴³⁾

이는 전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거니와, 증산이 천지공사를 집행하게 되는 현실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즉 삼계공사를 감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외계자연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에 쌓이고 맺혀서 천지가 상도를 잃은 부정적 현실관에 기인한다. 또한 현하의 조선국 주변 정세가 각축의 양상을 보이는 위급한 상황이며 물질문명에 대한 인간의 편견과 현실적 상극의 실상이 우주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극과 원한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증산사상의 기본적 지향점은 현세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변혁 원리 또는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증산의 천지공사에 내재한 사상, 즉 천지공사의 공행법리(公行法理)를 통해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⁴⁴⁾

홍범초에 의하면 천지공사를 원한의 기운을 해소하려는 해원이념(解冤理念) 또는 해원법리(解冤法理), 국가와 부모에 대한 보은법리(報恩法理), 협동으로 화합집결하는 상생법리(相生法理), 새 이념과 새 규범과 새 질서를 창조하여 새 세계로 진화하게 할 조화법리 등 네 가지로 보고 있다.⁴⁵⁾

이러한 증산의 천지공사에 대한 내용이 일부 사회학자들의 시각에서는, 증산 자신이 짜놓은 천지도수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인 사회변혁의 실천에 대해서는 관망적 입장의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즉,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는 선천사회는 생래적인 포원의 생산구조인데, 절대적 권능자이자 삼계대권의 주재자인 증산만이 천지도수를 뜯어고치는 작업인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선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인간의 사회변동을 위한 어떠한 노력·방법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회변혁을 위한 적극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증산에 있어서의 천지공사에 대한 사회변혁적 또는 종교적 내면을 성찰해 보면, 그는 부정적 현실을 타개하고 또한 혼란한 질서를 바로잡는 우주질서의 재정립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것은 “천지의 도수를 정리

43) 金鐸, 증산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59-67쪽.

44) 강영한, 앞의 논문, 199-202쪽.

45) 홍범초, 『증산교개설』(서울: 창문각, 1982), 91-105쪽.

46) 강영한, 앞의 논문, 198-206쪽. 참조.

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천지공사는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후천의 선경을 건설한다는 명확한 종교적 지향성이 내재하고 있다.

기성의 종교 개창자가 종교적 이상사회를 형이상학적으로 설정하거나 사후세계 또는 피안의 이상향으로 관념화시킨 것에 대해 증산은 지금의 ‘이 세상’을 선경화(仙境化)하는 사고의 대전환을 이룩했다. 증산은 이상실현의 현실화 작업을, 천지공사를 통해 실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종교 전통과의 차별화를 보이며, 그의 사상적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사회모순의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으로 이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주도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다.

천지공사의 주체인 증산은 개벽(開闢)이라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천세계의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후천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공사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선천의 현실사회와 후천의 이상사회는 개벽을 기준으로 대별되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개벽이라는 방법적 공사전개로 참혹한 세계의 현실을 마무리하고 천지를 뜯어고치는 사회 변혁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⁴⁷⁾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인 선천은 상극지리(相剋之理)에 의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참혹한 진멸지경(盡滅之境)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참상을 변혁하고자 증산은 개벽으로써 상생지도(相生之道)를 운행하고 이상세계인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세계의 건설은 상극상이 벌어지게 된 시초를 문제삼아 근원적 해결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시초가 인류의 기록의 시작이고 원한이 맺힌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⁴⁸⁾이며 이러한 원의 종자가 천지에

47)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얹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전경, 공사1-2)

48)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가득 차서 인간이 진멸지경에 이른 것이니 과멸에 빠진 인간을 건져서 포원(抱冤)을 해소시키고 본래적 인간 심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해원(解冤)인 것이다. 즉 증산은 인간과 신명의 세계에 누적된 원한을 본질로부터 해소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한 해소의 내용은 사회제도와 신분계급 등의 현실적 상황속에서 야기된 불평등한 원한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원에 대한 증산의 주체적 종교행위의 이면에는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거나 신명을 조화하는 질서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증산에 의하여 수행된 삼계 개벽공사는 인류의 존재양상이 개벽이라는 명명하에, 모순된 사회현실의 주체적 변혁을 통하여 신질서의 이상향인 후천의 선경을 지상에 구축하여 기충민을 광구(匡救)하는 종교적 목적을 실현시키는 대역사인 것이다.

문화의 중심 요소로서의 종교는 인간의 사고, 감정, 행위 등을 형성하며 또한 그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종교는 인간의 가치 지향, 의욕 그리고 자아 이상(ego-ideals)을 고정시킨다. 그러므로 사회변혁에 있어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종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초경험적 존재에 대한 묵종에 의존하기도 한다.⁴⁹⁾ 이러한 것이 조선후기의 갈등구조에 대한 사회 계층간의 다양한 해석과 접근으로 나타나게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이 오늘날의 인류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는 그 동안 인류가 세계변화의 노정에서 품어왔던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증산의 천지공사의 과정에서 비로소 제시되었다는 점과 그 결과 인류의 미래가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전경, 공사 3-4).

49) 토마스 오테아, 권규식 역, 앞의 책, pp.202-209. 참조

《참고문헌》

- 미변사등록』
춘조실록』
원경』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 집문당, 1992.
강영환, 『한국 근대 신종교운동의 성격과 사회변동』,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영호, 『실학과 개화사상의 관련문제』, 서울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제8집.
김용변,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서울 : 일조각, 1970.
김 탁, 『증산강일손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김홍철, 『한국 신종교사상의 연구』, 서울 : 집문당, 1989.
대순종학교재연구회 편, 『태순사상의 이해』, 경기포천 : 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동학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편,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上)』, 서울, 1994.
망원한국사 연구실, 『한국 근대 민중운동사』, 서울: 1989.
윤남한, 『조선시대 양명학연구』, 서울 : 집문당, 1982.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1996.
정석종,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서울 : 일조각, 1983.
한우근, 『동학의 성격과 동학교도의 운동』,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7』.
한우근, 『동학창도의 시대적 배경』, 두계이병도박사기념 한국사학논총』,
홍범초, 『증산교개설』, 서울 : 창문각, 1982.
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 일지사, 1992.
제임스 헌틀러 그레이슨,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서울 : 민족사, 1995.
토마스 오테아 저, 권규식 역, 『종교사회학입문』,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3.
Benjamin Nelson, *Self Images and System of Spiritual Direction in the History of European Civilization, in The Quest for Self-Control: Classical Philosophies and Scientific Research*, Samuel Z. Klausner(ed.), New York : Free Press of Glencoe, 1965.

An analysis of religious and social conflicts in late Chosun Dynasty

— With the emphasis on Thought of 'Jeungsan' —

Youn, Jae-Keun
(Dae Jin University)

《Abstract》

In the society of late Chosun Dynasty, the religion movement beared important meanings and roles in both a individual and social dimension. In general, religion can overcome the conflict occurring in reality, and resolve the ultimate problems of the individual by bringing forth the new meanings of lif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reasons why interclass conflict and unbalance were deepened, and the different social and history consciousness, and the self awakening appeared in late Chosun Dynasty. I will try to look into how Jeungsan is seeing these problems in the situation as this, and interpreting and solving disharmony and conflict of the religion society. So, main contents of the paper deal with Jeungsan's aspects of the reality recognition and the logic of overcoming conflict about all sort of fields such as the culture, the religion, the economy, and the politic in the society of late Chosun Dynasty. That is, based on 'Jeungsan-Thought', it will be analyzed how Thought of "ChunGii-Gongsa", originated from the reality recognition, acts on the social rev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 awakening among peoples.

Keyword: social or interclass conflict, reality recognition, ChunGii-Gongsa, SangKeuk, Heawon, Religious Utopia